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나누어 낸 계약금도 빠짐없이, 납부 내역을 반환 판결로 연결하다.

계약금·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일부 인용

분할 납부액과 금액별 지연손해금 반영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계약금반환 청구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피고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중 13,500,000원에 대하여



는 2024. 2. 22.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3.부터 각 2024.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지급 금액을 합산하는 것뿐 아니라 각 금액에 관해 언제부터 이자를 구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회사와 개인들이 함께 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건으로, 계약상 반환 책임과 개인에게 별도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을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돈에 대한 지급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판결은 원금을 13,500,000원과 1,500,000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연손해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납부한 돈을 청구할 때 원금과 이자 계산을 분리해 특정하는 구조입니다.

개인들의 책임은 회사의 반환 의무와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들에게 독립적인 배상이나 반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응의 핵심

나누어 납부한 계약금과 금액별 지연손해금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 떠안을 이유 없는 청구. 제대로 다투십시오.

분할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해율은 회사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나누어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입금 시점마다 이자 계산을 달리 해야 한다면?
- 계약금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상대방과 다툰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계약금을 납부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각 부분에 붙는 이자를 정리하여 법원 판단으로 연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별 청구 결과가 달랐으므로 회사에 대한 인용과 개인들에 대한 기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부담할 회사가 특정되었고, 금액별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의무에 포함되었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회사에 합계 15,000,000원과 각 금액에 대한 판결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납부한 계약금에 관하여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반환 분쟁에서는 지급 횟수와 거래 상대가 복잡해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금액별 청구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여 반환 판결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결과의 핵심

분할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해율은 회사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분할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해율은 회사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통장 내역을 하나의 반환 청구로 정리하고 싶다면?
- 회사의 지급 책임을 판결로 확인해야 한다면?
-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려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